

2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아래서 함께 봉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 귀중한
직분도 허락하셔서
의 몸된 교회가운데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말은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지혜로
우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아온 학생들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좋은 군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또 말은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상고해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은 참 다루기가 방대한 주제인거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설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
려운거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
니다. 욕심을 많이 낸다면 힘들어 질텐데 필요한 부분, 내가 꼭 전달하고
싶은 부분을 잘 전
달할 수 있으면 좋겠구요.
평생 배우는 거잖아요 평생, 평생 들여다봐야 하구요.
1, 2학년 같은 경우에 처음 대하게되는 뭐 유치부도 마찮가지일겁니다.
성경을 처음 대하게 되
는데, 처음 대하는 성경을 어떻게 하면 부담 갖지 않고 친숙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할것이나. 평상시에 지도할 때 어려운 부분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것이
나. 그런 정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지면 좋겠습니다.
뭐 장황하게 성경 몇장이다. 구절을 따지면 몇 구절이 있고 장을 분별한
사람은 누구고 절을
나누사람은 누구고 다 이런걸 장황하게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뭐하겠습니까
내가 읽지 않는다면 ...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러한 유익을 내가 체

험하고 제험하면서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가르칠려고 한다가 보다는 한 두가지라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우리가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가르칠거 한
두번 가르치고 말건
성경에 대해서도 1년내내 강조할 수 있습니다. 주제가
성경이니까 성격에 대해서
버리자 이렇게 되면 정말 아이가 괴로워집니다.
다시는 성경을 안볼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꾸준히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 어떻게 보면
처음 그 다리 징검다리 디딤돌 하나 놓는다 생각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찾아서 물론 외우신 분은 안 찾는거
같은데 외우신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러 함이니라’**

본문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당연하죠.

신약 27권, 구약 39권 전체 66권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가장 상식적인 이 이야기가 요즘은 참 인정되기 힘든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참 이걸 인정하는 사
람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이 기록했느니, 뭐 어떤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부분은
아니느니 사람이 했느니 ...

이래서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가 많이 손상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니까 성경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그거 설명해주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정도로 성경

말씀의 권위가 많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들도 역시 마찮가지입니다. 성경은 가감하지 말 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처음 기자인 모세, 신약성경의 마지막 기자인 요한이
가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고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거듭해서 강조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찮을 정도로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가랴사대,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여 가랴사대 ...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닐까봐 또
 그런부분들을 불신할까봐
 중간 중간에 계속 넣어놓은거 같습니다.
 읽어본대로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되겠다 하는 겁니다. 성경의 독특성은
 연구할수록 값어치가
 높다. 성경은 다야 .. 7대 기적나오잖아요. 이거는 JPG자료에서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음 ... 이외에도 참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적인거죠.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밖에 없는데, 주변적
 인 정황도 이것이 참으로 독특한 책이다.
 그리고 그 독특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럴다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형성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는데, 중간에 400년이라는 침묵기도
 있습니다.
 말라기부터 세례요한이 나오기전까지 약 400년간의 침묵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크고 긴 공
 백기를 통과해서 신약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구약이 탁
 모아졌다라는 것이 참 신기하
 잡아요.

이사야서 34장 16절 ...
 ‘너희는 여호와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
 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으셨기 때문에 빠진 것이 없다. 자세히
 읽어보면 빠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
 다. 이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이 Be
 1500년부터 AD 약
 100년까지 긴 기간동안 40여명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세 가지 다른 언어로 또
 약 9000km나 떨
 어져 있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

게 하나로 모아졌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그런책이 있어요. 없죠. 통일성, 연대, 이런 부분들도 정말 놀랍습니다.
 한주제로 판매 이것처럼 많이 팔린 책이 있어요. 이것처럼 많이 팔린 책이 없어요.
 요즘은 비싼성경도 많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저렴하게 많이 보급했습니다
 요즘은 수익사업처럼 된거 같아서 출판사에서 이거 하나만 출판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많이 출판하려는 거 같은데요.
 어쨌든 베스트 셀러다- 많이 팔린다는 것이죠. 자 많이 팔렸다는건
 웬니까?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흥미,
 남녀노소 다양한 학문
 적인 배경을 넘어서서 그런걸 초월해서 정말 낫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분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다면 어린아이들도 글을 읽습니다.
 노인분들도 마찮가지입니다. 혹은 눈이 안보이시는분들은 점자로 읽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는
 책이다. 이게 참 놀랍죠.
 다양한 언어 보존,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책이다.
 가장많은 박해를 받고 가장많이 찢겨지고 불태워지고
 이성경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성경은
 건재하고 우리에게
 게 임혀지고 있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정황들을 연구해봐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그런저 볼 필요있어요. 이런
 안에 것만 자세히
 살펴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성경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
 합니다.
 2번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는 책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일반계시와 특별계시가
 있습니다.
 뭐 일반계시 피조물, 뭐 창조해놓은 대상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밖에
 없죠. 하나님의 능력
 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계시가 없으면 그런 일반계시는
 특별계시로 인도하는 겁
 니다. 그 중에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계시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거예요. 하나님이 어떤분이신지 속성이 어떠신지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양심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의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예요.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걸 알게되는 겁니다.

읽고서 어 그러네 ...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섬기든지 말든지 선택이 아니예요.

우리가 보통 위인전기 읽으면 그렇죠. 위인전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분 누구예요. 저!일

유명한분 ... 누구 ? 장보고 상당히 당황되는 대답이 나옵니다. 장보고 세종대왕, 네 만원짜리에 익숙하니까 세종대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세종대왕에 대한 전기를 읽었습니다. 그분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를 것인지 안따를 것인지 나랑 별로 상관이 없고, 안따라도 별로 상관이 없

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따르면 따르고 말면 말고가 아니예요.

그분은 틀림없이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양심적으로 읽어보고 연구하면 그렇게 결정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경외하기를 배원라 잠언 앞부분에 많이 나와 있는게 뭐예요.

내 아들이 하면서 나와있는게 뭘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하나님 말씀에 ... 그 것에 대해

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말을 많이 하는것과 그렇게 사는 것

은 다른거 같아요. 정말 ... 그죠. 숭불을 밟으면 어떻게 되요. 발바닥이 어떻게 되요?

숭불을 품에 품고 있으면 타잖아요 그걸 실컷 얘기해놓고 자기가 그랬잖아.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 말년이 그랬잖아요. 그니까 참 말씀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거하고 내가 실천하고

하는건 좀 다른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말씀을 가까이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
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것처럼, 그 알자라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겠어요 그대
로 실천하는 삶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는 책이다.
3번 성경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알게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인
생의 본래 모습을 알려줍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름대로 좋아 보이는 것들을 살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그런거 추구하면서 평생
살아봐도 갈 때 가져가는
거 있습니까? 갈 때 가져 가는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색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는데, 그것만으로 끝나느냐
그것만 보여주고 끝나느
냐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보여 준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죽음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면 죽음으로밖에, 죽음으로까지만
설명한다면 성경이 다른책과
독특하게 구별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심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나익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제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앞에 서는 이 내모
습, 하나님의 심판대앞에 서는 내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말씀은 참
중요해요.
그 앞에 우리가 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전도서 전도서 11장에 보면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거 같아요.
11장 9절 ...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 하실 줄 알라'

자 심판의 주최가 하나님, 그리고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니까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뭐 마음
에 즐거입하는 것을 젊을 때 얼마든지 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
라.

그러기 때문에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마지막부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되어있잖아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7절도 되있죠. 7절도 ...

'흠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서 돌아가기전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인생의 본분이 13절 12장 13절 ...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

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라고 강조하는거예요. 결국
심판대앞에 서게된

다. 사람의 본분대로 잘 지내느냐 잘 안지내냐 ...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선악간에 다 드러내

십니다.

하나님앞에 우리의 본래의 모습, 자 인생이 다가 아니다- 내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

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잠깐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에 불과하다 모태에서부터 벌거벗고 나와서 일평생에 죄 가운데 살면서
어두움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나중에 심판받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것이 사람이다. 성경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

리 본래의 모습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만 들으면 정말 한심스럽잖아요.

참 정말 덧없이 지나가네. 공수레 공수거너! ... 덧없네 .. 안개네 ...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 참 별

거아니네 .

하루살이에게라도 놀려죽을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별거 아니네.

그 별것 아닌 인생을 또 짧게 사는 그생을 그 죄 가운데서 내내
살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참 인생 허무한 겁니다. 그런 우리 본래의 모습을 성경은 일깨우고

그 다음에 4번이 중요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된

인간의 비참한 운
 명을 알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모습을 비참한 그대로의 모습으로만 남게 하지는
 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앞으로 인도하는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완성자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 영원한 시간속에서 인생이 뭐 6000년 얘기하는데. 6000년
 이라는 짧은시간내에
 서 예수님오시기까지 뭐 4000년의 역사 그 기간 시간속에서 유별나게 3년
 반이라는 시간은
 강조되어 있다 그겁니다. 유별나게 ...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 순간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그 6시간에
 성경이 거의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요 그 한순간에 ...
 그런거 보면 참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수 있는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오랫동안 준비였지만 결국은 짧은
 순간에 나타났잖아요.
 우리의 삶도 비록 짧지만 불꽃같이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덧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먹고 자고 쉬고 그게 다잖아요. 실컷
 돈벌어서 먹는데쓰고 입는
 데 쓰잖아요. 그런 짧은 삶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짧지만 불꽃처럼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
 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
 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
 그랬습니다. 알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할말 없는건데! ... 그냥 내버려둬도 ..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신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성경말씀을 통

해서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성경에 기

록되어 있다. 성경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알고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5번 구원받은 생명의 올바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성경은 필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성경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바른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앞에 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일 어떻게 살아가야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생명이 올바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성경은 필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

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꾀술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

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사모하려면 버릴 것이 있다.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사람이 있는데 계속 만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정리해야죠.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전하게 살아 갈려면 과거에 쫓던 것들 구습과 관련된 옛 성품들이 있다

면 이제 그런 것들을 버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 새벽밥 먹고 올 수 있죠.

그렇죠. 아침 째룩 굶고 오신분도 있습니다. 뭐 물론 대부분 개인이
게을러서 그러겠지만 뭐
정말 멀어서 피곤한가운데서 오다 보니까 굶고 오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비싼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도 ... 있다 해도 말일 이상하네요.
아무리 비싼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도요. 읽지 않으면 또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시대는 성경이 너무나 흔할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읽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원 집에 다섯권이 있으면 다 한번씩 읽어봤습니까? 다섯권을 ?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가 애독하는 것도 하나 있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장식으로... 진짜
성경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흔하게 읽지만 실제로 많이 안읽는다. 분실도
가장 많이 아는 책
이 성경책이더라고요. 하여튼 잊어버려서 널린게 성경이에요.
잊어먹고 제일 안찾는것도 성경인거 같아요.

워낙 흔하니까. 그렇죠. 옛날 비교해보면 우리가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알아가면서, 알아가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알아가는게 우선인거예요- 우리는 생명뿐만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은혜위에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자세 여기 나오죠. 갓난 아이가 젖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자 갓난 아이 젖먹고 있을 때 뺏아가면 애가 좋아해요?
얼른 줍니까?
젖 뺏아가면 난리가 나요. 젖병 뺏어가면 ... 그렇죠.
그만큼 그거에 집착을 합니다. 젖에 대해서 ... 그렇죠.
어린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대해서 대단한 집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뺏아가면 난리가 나더라고요.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만큼 그것을 가지고 있으려구해요. 자 아이들이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맛을 틀어야 되죠?
 우리 아기가 '口'우유를 먹다가 '入'우유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口'우유만 먹었는데 요새는 'く'우유만 먹어요.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거
 예요. 우유회사가 그렇게 많이 안되니까.
 그런데 입맛이라는데 참 그런거같아요.
 좋은걸 맛들이면 안좋은걸 먹습니까?
 일부러 막 먹어요. 그러진 않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좋은맛을 들여야 됩니다.
 좋은맛을 .. 성경은 나에게 어떤 맛입니까? 쓴맛, 단맛, 뭐 건조한맛, 뭐
 그냥 뭐 냉냉하고 별로
 맛이 없다.
 어떤종류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맛을 잘 들이십시오. 아이들은
 특별히 맛을 잘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말씀 읽어보기. 그런것도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겠
 죠. 좋아하는 말씀 써볼게요. 왜 좋으니? 뭐 제일 앞에 있어서요. 어 그래
 잘했다.
 하여튼 하여튼 좋게 아이들이 맛을 들일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왜 읽습니까? 성경을 왜 읽습니까?
 자 아이들이 젖을 왜 먹죠? 생존을 위해서 먹습니까? 물론 생존을 위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성경말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말씀을 먹어야 되는거예요.
 왜 귀찮아하고 안먹으려하냐고 하는데
 안먹고 있으면 좋아요?
 아이고 분유값 절약되고 얼마나 좋아요. 애들은요. 하루 한끼만 먹어도
 되요. 그런 부모가 있
 습니까? 안먹으면 억지로라도 먹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성경말씀을 잘
 좀 한말씀이라도
 전해줄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거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잘 먹어야죠. 모유를 먹이는 어머니는요. 잘 먹어야
 됩니다.

본인이 안먹으면서 좋은걸 줄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라기위해서
 성경말씀을 읽고 배
 워야 됩니다. 성경말씀은 단순히 호기심과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엉뚱하게 자라면 안되죠.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장은 있을 수 없어요.
 물이 있어야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이
 있어야지 달달합니다.
 시냇가에 심기긴 심겼는데 물이 없는데 심겼어요.
 안클거 아니에요. 우리가 식물의 성장과 물이 관련된다면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말씀과 관련된
 다. 말씀의 뿌리를 확 내리고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의 성장과 함께 성숙도 동반되어야 한다.
 실컷 자라는데 몸뚱아리만 크면 뭐하겠어요. 머리가 안크고 ... 그러면
 기형이 되는 거예요.
 등치는 이만한데 하는건 어린애 수준이다. 그러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크는것 만큼 성장하
 는거 만큼, 우리가 성숙되어가야 된다.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죠. 단단한 식물들도 먹을 수 있을만큼 성장해야
 되겠다. 성숙해져야 되
 겠다. 신앙의 바른 생활을 위해 성경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것이라. 방앗간에가서 이런 말씀 하면 안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하면 주인이 원
 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였을 때 벽을 떼었다라는 말씀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말씀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이 어떠한지 우리가 나타내 보일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쓰임
 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것과 그말씀속에 들어가는 것은 다르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것과 이거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고
 말하면 뭐 하겠어요. 내
 가 이속에 들어가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
 그렇지요. 진수성찬 차려놓으면 뭐하겠어요. 내가
 안먹는다면 소용없죠
 내가 공부를 좀 해야되겠다.
 6번 대하며 읽는자세 사모하라, 가까이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하는 마음으로 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순종하라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로 읽으십시오.
 뿌린만큼 거둡니다. 시간이 요구되겠죠.
 우리가 뭐 발작이물이던지 작물을 심어서 자라는데 빨리 자라는것도 있고
 전전히 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짧은 일년에 한번밖에 수확을 못하잖아요. 그런거 하나 얻으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어요.

게으른 자는 얻으려 해도 얻지 못하죠. 그렇죠.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시작이 반이다. 노력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까이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예전에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런 멘트가

있었는데요-

당신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교사들은 교사들 서로에게 보여줘야 되고 또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 성경말씀을 정말 잘 읽고 보시는구나.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

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성경읽을 때 이것만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도움자료

들을 많이 보잖아요.

성구사전 추천하겠습니다. 성구사전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분 손들어 보세요. 있는분 ... 대부분 있죠. 성구사전 주제별로 분류되었으니까 구지 뭐 두

꺼워서 원어별로 분류된 사전은 필요없을거 같아요. 요정도 ...

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낱말 못 잘모르는게 많잔아요. 그러면 또 요런게 필요하겠죠.

지금 세 가지 가져왔어요. 아가페 성경사전도 있고, IVP 사전도 있고, 비전성경사전도 있고

... 많습니다. 두 권은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있는거예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얼른 와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좋지 않을까 ...

낱말 잘 모르면 찾아보면 좋잖아요. 잊어버리더라도 찾아보면 좋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사기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이용해서 찾아보셔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나름대로 성경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아무런 자

료 없이 한다는게 한다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낱말 못은 뭐 저절로 알아지겠어요.

그래서 참고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구요. 가장 중요한 교과서 성경을 집중해서 읽는 습관

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설명해줄 때 너무 복잡하게 수준을 넘어서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할거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회되는데로 쉬운 부분들을 전달을 해주면 좋겠구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아이들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읽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은 잘 한겁니다. 그래서 올 한해 성경말씀을 풍성하게 배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가운데서 구원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운데 두셔서 교사로 봉사하게 하신 것 또 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항상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나아온 어린이들 잘 지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기도하면서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을 통해 교훈 얻는 생활을 먼저 하고 본을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미약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지혜를 구해서 맡은바 일을, 맡겨주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학기 또 일년 잘 보내기 위해서 3월달에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들도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해주시고 주님 은혜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